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기뻐하며 경배하세(찬13/새64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귀성 장로 2부/김근수 장로 3부/김도석 집사 4부/박제인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참 좋은신 주님(작곡 김기영)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5:21-43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22)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4) 그와 소녀의 이야기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맘 따뜻한 선물 A Warm-hearted Gif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번 세미나 때, 김양재 목사님이 선물 하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은 청주의 한 자매가 목사님이 미국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택배로 선물을 보내왔으며,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써서 예쁜 액자에 넣어서 보내온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캘리그래피를 하는지라 얼마나 잘 쓴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선물을 보내준 자매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더 값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매가 보내온 액자를 책상 앞에 놓고 보면서, 절친이 보내온 선물인 양 친근함마저 느낍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개업할 때면, 가게에 들러 액자를 고르고, 그려 놓은 그림 중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그날 전해드릴 말씀을 캘리그래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액자에 넣어서, 꼼꼼하게 강력 테이프로 붙이고, 기도하면서 액자를 만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심방 후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기에 태평양을 넘어, 심부름 하시기도 너무 황송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전달 받으니, 그 따뜻한 정성스런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자매의 사랑과 기도가 듬뿍 담긴 선물을 보며, 오늘도 감사가 넘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어서 매일 새 결심을 하게 하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자매의 작은 선물이지만 매일 또 한 사람의 하루를 감사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애를 지고 살아가는 진실 양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바울이 가진 몸의 가시가,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듯이, 장애가 하나님 능력의 분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중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 해야 함에도 그 간단한 감사 기도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얼굴도 모르는 분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인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선물이 됩시다. 우리의 행동이 사랑의 글씨가 되고, 은혜라 부르는 액자의 캘리그래프가 되어 한 자 한 자 새겨져 그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려지는 선물이 됩시다.

I received a gift from Pastor Yang-Jae Kim during our recent seminar. This gift was from a woman living in Chung-Ju who had heard my message online when I preached in Korea. She heard that Pastor Kim is going to U.S. and she preferred that the gift is delivered directly in person rather than via shipment. The gift was a beautiful framed artwork of Calligraphy. I also took an interest in Calligraphy recently and so, I realized right away that this was a beautiful calligraphic writing. But the bigger surprise was the fact that this person who sent the gift was a blind. Thus, this gift was more precious with great sentimental value. Even though I received the gift from a person I never met, each time I look at it, which is placed on my desk, I feel as though if it is from a close friend as I can feel the warm heart. Whenever I visit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during the grand opening of a new business, I usually take a frame of my own artwork of Calligraphy written with proper words to congratulate them. I carefully safeguarded with tapes, then I place them in a nice gift wrap. So I know the warm-heart through this gift which is prepared with sincere prayer, knowing it would go across the Pacific Ocean and be delivered through the hands of the admired pastor. So her name is known as “Jin-shil,” and even today, I am filled with thanksgiving just by looking at the gift made with love and prayer.

But what's more grateful are the words written within the frame as I commit myself once again to the Lord's ministry. A small gift from a person I never met before, but it has such a powerful message that gives hope with daily thanksgiving and a new resolution. And so today, I pray for Jin-shil because she must live with this disability. “Let this storm pass quickly, and just like the thorn (burden) which Apostle Paul carried was enough grace in accomplishing God's powerful work, let this blindness be used as a powerful fountain of salvation and to become the storage of God's amazing glory.”

The gift of all Gift from God is our Savior, Lord Jesus. And for this wonderful gift, we are to give a mandatory thanksgiving and unconditional “Amen.” However, we fall too short in this simple task of thanksgiving. But today, a gift from Jin-shil, a blind person from Chung-Ju, whom I have not met, reminds me that the greatest gift is our Lord Jesus. So I challenge everyone, let us become the “warm-hearted gift” to remind our friends and neighbors, the true gift of Love through the Cross carried by Christ. And I pray that our actions might shout out the words of love that are perfectly framed, just like the artwork of Calligraphy, that each and every word stand out on that desk which it stands.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22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마 6:11)

1.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기도의 세속화'가 아닌가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교를 들으며 잘 정리해 봅시다.

2. "오늘 ... 주시옵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고/ 출 17:11-13)

기도하기 전에는 () 보다 더 ()을 할 수 없다

3. "... 우리에게 주시옵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관심을 놓고 우선적인 기도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사역과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주보를 다시 읽으며 함께 기도합시다.(참고/ 마 18:19)

4.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 일용할 양식" 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한 달 치, 혹은 일 년 치를 한꺼번에 구하지 않고, 일용할(daily)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걸까요? (참고/ 신 8:3, 출 16:32)

적용하기



■ 적용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욕탕 THINK 세미나

회개할 때 힘을 잃어가는 나의 죄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절묘한 타이밍에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석한 3일은, 말씀과 살아있는 간증을 통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감동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직장을 사역의 현장이라 생각했지만, 구속사적 시점으로 바라보지 못해 불만도 생기고 지쳐있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제 자신이 리더라는 타이틀 안에서 어느새 자꾸 신종 바리새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구속사적인 시선으로 마음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김나은 집사(남가주 사랑의 교회)

1986년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이후부터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베델교회에 와서는 '매일 성경'으로, 지금은 '큐티인'으로 QT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QT가 제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었고, 제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이 없는 혼자만의 묵상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QT 목회세미나'는 QT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QT는 말씀을 통해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 실린 간증문을 볼 때마다 저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자기의 죄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죄는 고백할 때 죄의 능력이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과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T는 손과 발이 가는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며, 이 적용의 결과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나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QT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음을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QT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혼 구원에 쓰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아영 권사(베델 교회)

수많은 이혼가정과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자 애쓰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는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베델교회에서 편하게 참석하여 뜻깊고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차례 흥년을 겪으며 말씀의 베들레헬으로 향하는 저의 인생이지만, 바르고 성실한 요셉과는 다른 유다를 구속사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해 무시하고, 구원 때문에 애통해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말씀 속에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동안 큐티 사역을 해오시며 비판의 시선을 받으셨을 때를 말

씀하시며 진실한 회개와 애통한 눈물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하나님께 인정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감정이 늘 휘둘리며 살아온 것을 깨닫고 눈물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럼없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충격적인 시연들을 기쁘게 오픈해 주신 우리들교회의 목사님들과 초원지기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주시는 김양재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염선희 권사(베델 교회)

먼저 30여년 간의 큐티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 지향적 큐티"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그 저 큐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향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했었던 협소한 시각을 확장시켜준 이번 세미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는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님이셨던 90년대 코스타 시절부터 가정 중수와 큐티 사역에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며 보여주시는 많은 열매를 듣고 보며 너무 기쁘하고 감사하는 모습에 아내를 세미나로 인도한 저도 너무 기쁩니다. 평소 아내가 김양재 목사님의 '왕전팬' 이라서 저도 가끔 서적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은 들었지만 역시 책과 화면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눈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 가정 구원을 위해 눈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 이 시대에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이 되어,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럽고 우리 이민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강사님과 베델교회, 우리들 교회 모든 스텝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큐티 사역을 통하여 더욱 멋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진형 목사(ANC 온누리 교회 부목사)

교육부-멕시코 선교

키가 자라면 담장너머가 보이지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선교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드디어 나도 선교지에 가게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25일, 멕시코에 도착하니 서투른 스페인어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 계시다고만 느껴졌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와 마을을 둘러보면서 VBS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과연 오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날 시작될 VBS를 위해 뒷배경 등을 설치하며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으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남에게 보일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찬양과 율동이 시작되었는데도 어린이들은 잘 따라 하지 않았고 저의 긴장과 걱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억지로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VBS 일정이 끝나고 우리 팀이 모여 VBS에 참석한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부르짖었고 비로소 주님은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아이들은 기적처럼 진심을 다해 찬양과 율동을 하며 즐겁게 주님을 힘껏 높여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향한 걱정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크리스천 삶의 핵심이고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 전

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의 두려움과 걱정은 섬기는 자가 아닌,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회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놀랍게 어린이들과 훨씬 더 잘 소통할 수 있었고 주님은 저에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일을 잊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Yunny Hwang(5학년)

지난 3월, 저는 주님께서 제 삶에 큰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확신과 기대를 하고 교육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님은 모든 훈련과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의 두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굳건한 믿음을 생활하며 성장하기를 소원했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 리더

모집 소식을 들었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믿어 지체 없이 남편과 함께 등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에 예민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멕시코에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뻣뻣한 일정을 불만 없이 따르며 불편한 환

경들을 감수하고 그곳의 아이들을 밝은 얼굴로 맞으며 안아주었을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팀을 통해 깊은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섬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좋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BYM 학생들이 멕시코 어린이들을 향해 사역하는 모습은 마치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곳의 아이들은 정말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순수한 참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BYM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사들,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고 우리가 모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함께 이번 멕시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함께 했던 전도사님들의 주님과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며, 부모로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델의 자녀들을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Susanna Choi(교사)



제자 훈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신 주님



'선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단어였지만, 손바닥을 뒤집으니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설레고 기대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동역하는 분들이 매년 단기선교로 선교지에 나가고,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거나 또는 여러 모양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저는 아웃사이더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이었고, 더불어 처한 신분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를 핑계로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특히 BAM 훈련을 권유하는 주변 분들을 피

하거나 훈련 신청 부스를 애써 외면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이 순간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BAM훈련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돌아보면 제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선교는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 나의 일터가 얼마든지 선교 현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는 구원받은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겹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를 실

천함에 있어서는 늘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일터를 일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BAM을 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신실히 나아가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르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박재영 집사



베델 선교 - 캄보디아

아버지 마음



아들과 함께한 단기 선교,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실에서 한 아이가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작은 소리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절을 진지하게 외워나가는 캄보디아 작은 소녀의 모습에서 아바 아버지라 처음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억이 다

시 마음속에서 울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 뿌린 복음의 결실은 9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있는 세례식을 지켜보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소망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에 함께한 작은 아들에게 이번 선교가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기억으로 남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 중 어느 때는 대견하게 보이다가 어느 때는 맘에 차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지

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 끄랑저의 어귀에 들어섰을 때, 깔깔하게 세워진 학교 건물에 놀라고, 학교 옆마당에 넓고 근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축구장에 놀라고, 교육과 의술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모습에 놀라고,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에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 떠나기 전, 매일 같이 QT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또한 돌아오는 시간까지 서로가 격려하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에서 교회의 차세대 일꾼이 될 마크와 제니에게 절로 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에 함께한 동역자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박상범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람/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도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상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상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충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제자훈련 등록

펜데믹을 지나오며 지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신앙을 갖고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 믿음은 있지만 체계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분,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을 학기 양육반과 제자반을 개강합니다. 베델 교회의 자랑인 양육반은 훈련받은 평신도 리더들이 일대일, 혹은 일대이로 동반자와 함께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베델 제자훈련의 2단계 코스입니다. 리더와의 깊은 나눔과 배움 속에서 삶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꽃이자 3단계인 제자반은 깊이 있는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김한요 담임 목사님이 집필하신 교재로 훈련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종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 양육반: 8월 30일(화)부터-12월까지(총 16주)
- ▶ 오리엔테이션: 8월 27일(토) 오전 7시 30분-8시 유년부실(구식당)
- ▶ 제자반: 8월 30일(화)부터-2023년 4월까지(총 30주)
- ▶ 오리엔테이션: 8월 27일(토) 오전 8시-8시 30분 유년부실(구식당)
- ▶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	8/21: ①부-김동건	②부-김동수	③부-김병인	④부-박찬미
	8/28: ①부-김명수	②부-김백열	③부-김병수	④부-오새아
	9/4: ①부-김병찬	②부-Sam Kim	③부-김성균	④부-윤여훈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 8/20: 변영택 8/27: 성주영 9/3: 선우영 9/10: 박상범

강단꽃(8,9월) | 8/14: 김창남, 안예진, 최하자 8/21: 양준서, 유주원, 최하자 8/28: 조현지, 정선경, 현승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미숙(한의학),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이옥선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8월 수요일예배 안내** 8월 한달은 김한요 담임목사님께서 복음서의 비유들을 중 4가지 비유를 택하여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네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에 오셔서 천국 비밀이 깨우쳐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베델 제자훈련 등록** 가을학기 양육반(한/Eng), 베델제자반(한/Eng) 등 여러 훈련 과정을 오늘 주일(7일)부터 21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나 온라인(bkc.org)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강은 8월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양육반- 8월 27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구식당)

제자반- 8월 27일(토) 오전 8시 30분, 유년부실(구식당)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57차 전도폭발 모집** "기도가 깊어지면 전도가 높아진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8월 30일-12월 13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훈련 방법/장소: 대면, 비전채플

등록 방법: 교회 앞 부스 or 교회 홈페이지(bkc.org)

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베델 MIT 대학** 항상 푸르른 시니어들을 위한 <베델 MIT 대학> 가을학기가 열립니다. 이번 학기는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다음 주 일인 8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기대하는 61세 이상 시니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 한방의학, 통기타, 아코디언, 노래교실, 붓글씨, 동양화, 서양화,

뜨개질반, 중국어 등

문의: 이선갑 장로 (949)514-5999,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세계 속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1단계: BAM 이해와 삶과정, 2단계: BAM 사례 연구 과정으로 열립니다. 훈련은 온라인 영상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본당 앞 부스나 홈페이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9월 1일(목)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월~8월 두달간 큐티인 섬머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두달간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8월 마지막주에 시상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적으로 큐티인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8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8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와 TA), K-1(3부 TA), 초등부(2,3부 교사와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C2C 청소년 합합댄스 워크샵** 합합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과 8월 26일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등록기간: 베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7월 24일(주일)-8월 14일(주일)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단기선교 팀원 모집** 2022년 파송·협력 선교지에서 어린이 VBS,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일 멕시코(박영완/정기영 선교사)

선교기간: 9월 24일(토) or 11월5일(토)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 T국(장과장/주영매 선교사)

선교기간: 10월2일(주일)-11일(화)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우간다(박민수/이순영 선교사)

선교기간: 10월 17일(월)-26일(수) 문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멕시코 과달라하라(하익현/김영중 선교사)

선교기간: 10월 20일(목)-23일(주일)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기니비사우(유요한/글로리아 선교사)

선교기간: 12월 6일(화)-14일(수) 문의:한준 집사 (714)745-0969

◆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안내** 2022년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개강됩니다.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http://bks.bkc.org>)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집사 (949)836-7687

◆ **2022 GMMA Conference 조기등록 안내** "God Reigns"라는 주제로 의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베델교인들을 위한 50% 특별 등록비 할인과 조기등록(조기등록 마감 8월 20일)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간/장소: 10월 21일(금)-22일(토), 베델교회

문의: 오세영집사 (949)892-9929, conference.gmma7.org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영자 권사님(김정준 장로의 부인, 김현옥 집사 모친/김선미 권사 시모)께서 8월 9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정광정 집사님(정순남 권사의 남편)께서 8월 9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현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Proper Meal Time Prayer At Least (Matthew 6:11)

1. There has been criticism regarding the phras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taught by Jesus, a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rder and content in our prayers, that it secularizes prayers. Based on today's sermon, please discuss.

Apply to Life



2. He teaches us to pray "Give us this day...". What is the lesson to us of "this day"? (Ref: Ex 17:11-13)

Before the prayer, you cannot do _____ more than _____.

3. We are taught to pray "Give us....". It directs and emphasizes our attention to 'our' church's prayers. What is the interest and attention of our church? Read again the weekly church bulletin to determine our church's key ministry and prayer requests. (Ref: Mat 18:19)

4. Although we may feel that it's a minor matter to ask for our daily bread, bible teaches us to pray for "... daily bread". Why do you think we are not told to ask for a month's worth, or a year's worth of food at once, but instead only a day's worth of food? (Ref: Deut 8:3, Ex 16:32)